

# 캄보디아 2023년 총선 결과와 정치·경제 전망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 차 례

1. 2023년 총선 결과 및 의미
2. 총선 후 캄보디아 정치·경제 전망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3년 7월 23일 치러진 캄보디아 제7대 총선 결과, 제1당이자 훈센(Hun Sen, 70) 총리가 소속된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전체 의석수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인민당의 압승은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는 당 조직력과 정국 장악력 △유력 야당 배제와 선거법 개정 △고성장 지속에 따른 중산층과 지지층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선거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임.
- ▶ 본 선거에서 나타난 인민당의 높은 득표율은 권위주의적 일당 장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넷(Hun Manet, 45)의 총리직 승계를 위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 인민당은 2018년 제6대 총선, 2022년 지방선거(코뮌 평의회) 승리에 이어 제7대 총선에서도 압승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일당 장기 지배체제를 공고히 함.
  - 총선 직후 훈센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장남 훈마넷에게 이양할 계획'임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의 높은 지지율은 당 내외적으로 총리직 세습에 대한 이견과 분란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8월 말 등장할 훈마넷 신정부는 아버지 훈센 총리의 정치·경제·사회 정책 기초를 유지하면서,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경제성장엔 중점을 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 훈마넷의 총리직 승계와 함께 캄보디아 주요 지도층 자녀들인 일명 '태자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 승계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 구성도 예상됨.
  - [경제] 신정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캄보디아를 위한 '5대 기본 정책 2023~2028(Five Primary Strategic Goals 2023-2028)'과 새롭게 수립 중인 '오각전략(Pentagon Strategy)'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 이번 선거가 캄보디아의 정치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한-캄보디아 간 협력전략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정부는 LDC 조기 졸업, 경제 및 산업 다변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후퇴 및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과 EU 등 국제 사회의 제재가 확대되거나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2023년 총선 결과 및 의미

## 가. 총선 결과와 인민당 압승의 배경

### 1) 총선 결과

- 2023년 7월 23일 치러진 캄보디아의 제7대 총선 결과, 제1당이자 훈센(Hun Sen, 70) 총리가 소속된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총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표 1 참고).<sup>1)</sup>
-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NEC)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총유권자 971만 655명 중 84.2%인 817만 7,053명이 투표해 지난 제6대 총선보다 1%p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sup>2)</sup>
- 이번 총선에는 여당인 인민당(CPP)과 17개 군소정당이 참여했으나, 82.3%의 득표율을 기록한 인민당이 전체 125석의 96%인 120석을 차지함.<sup>3)</sup>

### 글상자 1. 캄보디아 선거제도 개요

캄보디아는 입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이 국가원수 지위와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됨.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되는데, 하원의원(임기 5년)은 125명, 상원의원(임기 6년)은 62명임. 하원 선거인 총선은 지역별 비례대표 선거방식인 동트방식(D'Hondt method)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며, 25개 선거구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직접선거). 상원의원의 경우 '코뮌(Commune) 평의회' 의원 선거(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40세 이상의 의원 58명과 국회 및 국왕이 각 2명씩 지명한 4명으로 구성됨.

자료: 외교부(2019), 「캄보디아 개황」; 정연식(2018), 「캄보디아의 2018년 총선: 캄보디아구국당 해산과 퇴행적 선거권위주의」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다만 지난 제6대 총선에서 인민당이 전체 125석을 석권한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120석을 차지한 가운데, 비교적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인 프놈펜, 캄봉참, 캄봉툼, 칸달, 프레이벵 지역에서 훈실팍(FUNCINPEC, 민족통일전선)당이 각 1석씩 획득함.<sup>4)</sup>
- 훈실팍당의 득표율은 9%로 알려짐.<sup>5)</sup>

1) 이는 예비 발표에 따른 것이며, 결과는 8월 초 발표될 예정임.

2) Khmer Times(2023. 7. 24), "HEADED FOR A BIG WIN: Early results indicate CPP will secure 120 seats with Funcinpec getting five"(검색일: 2023. 7. 27).

3) The Diplomat(2023. 7. 24), "As Expected, Hun Sen Trumps in One-Sided Cambodian Election"(검색일: 2023. 7. 27).

4) Khmer Times(2023. 7. 24), "HEADED FOR A BIG WIN: Early results indicate CPP will secure 120 seats with Funcinpec getting five"(검색일: 2023. 7. 27).

5) The Diplomat(2023. 7. 24), "As Expected, Hun Sen Trumps in One-Sided Cambodian Election"(검색일: 2023. 7. 27).

표 1. 2023년 제7대 총선 유권자 및 의석 득표수

(단위: 명, 석)

	지역(Province)	유권자 수	총 의석수	인민당 득표 의석수	훈신폐당 득표 의석수
1	Banteay Meanchey	431,775	6	6	-
2	Battambang	661,970	8	8	-
3	Kampong Cham	652,540	10	9	1
4	Kampong Chhnang	359,698	4	4	-
5	Kampong Speu	599,245	6	6	-
6	Kampong Thom	456,705	6	5	1
7	Kampot	421,119	6	6	-
8	Kandal	818,459	11	10	1
9	Koh Kong	78,301	1	1	-
10	Kratie	231,837	3	3	-
11	Mondulkiri	51,627	1	1	-
12	Phnom Penh	961,742	12	11	1
13	Preah Vihear	151,191	1	1	-
14	Prey Veng	750,836	11	10	1
15	Pursat	300,328	4	4	-
16	Rattanakiri	117,657	1	1	-
17	Siem Reap	618,835	6	6	-
18	Preah Sihanouk	149,807	3	3	-
19	Stung Treng	97,452	1	1	-
20	Svay Rieng	415,919	5	5	-
21	Takeo	668,548	8	8	-
22	Kep	28,198	1	1	-
23	Pailin	45,740	1	1	-
24	Oddar Meanchey	151,168	1	1	-
25	Tbong Khmum	489,958	8	8	-
	<b>총계</b>	<b>9,710,655</b>	<b>125</b>	<b>120</b>	<b>5</b>

자료: Cambodia National Election Committee(NEC) 및 주요 언론사(검색일: 2023. 7. 27)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 인민당의 승리 배경

■ 인민당의 압승 배경으로는 먼저 전국적으로 구축된 인민당의 조직력, 다른 정당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금력과 언론장악 등을 들 수 있음.

- 인민당은 당중앙위원회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임위원회 35명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내에도 당 조직을 설립해 인민당의 간부가 정부 요직을 관장하도록 함.<sup>6)</sup>
- 무엇보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38%이자 유권자의 약 70%를 당원으로 관리함에 따라 선거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2021년 기준).<sup>7)</sup>

■ 다음 배경으로는 훈센 정권하에서 자행되어온 지속적인 야당 탄압 결과와 최근 개정된 선거법의 영향을 들 수 있음.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예정),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종합진단』에서 재인용.

7) 山田裕史(2022), 『カンボジアの内政と外交』, p. 4.

- 훈센 정부는 2022년 실시된 6월 지방선거에서 22.3%를 득표해 인민당을 긴장하게 만든, 사실상 유일 야당인 촛불당(CLP: Candle Light Party)을 7대 총선에서 배제하였음.
  - o 훈센 정부는 2018년 제6대 총선 직전 유력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을 ‘정부 전복 음모죄’로 강제 해산했으며, 이에 따라 인민당은 제1야당이 부재한 상태로 총선을 치러 의석수 125석을 모두 차지한 바 있음.<sup>8)</sup>
  - o 강제 해산된 CNRP는 이후 캄보디아 CLP로 개칭하고 2021년 10월부터 정치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번 제7대 총선에서도 제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함.
- 또한 인민당과 훈센 정부는 2023년 7월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하지 않은 시민과 선거 혼란을 조장한 정당에 민·형사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고, 야당, 반정부 단체, 반정부 인사 등의 투표를 제한함.<sup>9)</sup>
  - o 선거법 142조와 143조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시민 혹은 투표용지 훼손을 선동하는 시민, 선거에 혼란을 주는 정당 등에 벌금 부과, 형사처벌 시행, 정당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sup>10)</sup>
- 이에 더해 훈센 정부와 인민당은 주요 야당 인사나 지도부를 대상으로 억압과 회유를 일삼고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짐.
  - o 대표적인 사례로 촛불당 최고고문, 부총재, 사무총장 등 기소, 풀뿌리민주당의 총리 후보와 사무총장 등 회유를 통한 인민당 입당 및 입각, 마지막 독립언론으로 알려진 Voice of Democracy의 사업면허 취소 등이 있음.<sup>11)</sup>

■ 더불어 훈센 총리 집권 기간 연평균 7%에 달할 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했다는 점과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지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도 승리의 배경으로 들 수 있음.

- 캄보디아 경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7%씩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33.8%에 육박하던 빈곤율(하루 2.66달러 미만, PPP 기준)도 2019년 기준 17.8%로 감소함.<sup>12)</sup>
- 특히 1990년대 내전 이후 훈센 정권하에서 고속 성장한 캄보디아 경제는 훈센 총리와 인민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정당성’의 근거이기도 함.<sup>13)</sup>

## 나. 총선의 의미

### 1) 권위주의 체제 및 일당 장기 지배체제 구축

■ 이번 총선은 훈센 총리와 인민당이 2018년 제6대 총선과 2022년 지방(코윈 평의회)선거에 이어 7대 총선마저 압승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8) 외교부(2022), 「캄보디아 개황」, p. 24.

9) The Diplomat(2023.6. 29), “Is Cambodia’s New Election Amendment Actually About ‘Pardoning’ Exiled Opposition Leaders?”(검색일: 2023. 7. 27).

10) Ibid.

11) 山田裕史, 新谷春乃(2023), 「安定的な世襲の実現に向けて—2023年カンボジア総選挙」, p. 3.

12) World Bank(2022), “Cambodia Poverty Assessment: Toward a More Inclusive and Resilient Cambodia,” p. 29(검색일: 2023. 7. 31).

13) East Asia Forum(2023. 7. 17), “Considering Cambodia’s future beyond Hun Sen”(검색일: 2023. 7. 27).

- 인민당은 지난 6대 총선에서 하원 125석 전석을 차지한 데 이어 2022년 6월 제5기 코뮌 평의회 선거에서도 74.32%를 득표해 전체 코뮌 1,652곳 중 1,648곳에서 제1당이 됨과 동시에 의석도 1만 1,622석 중 9,376석을 얻어 제7대 총선 압승의 기반을 구축함.<sup>14)</sup>
  - 캄보디아는 최소 행정구역인 코뮌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평의회 선거(직접 및 비례대표제 방식)를 하고 있음.
  - 인민당은 특히 코뮌 평의회 장악을 통해 간접선거제인 상원, 수도 프놈펜과 주, 시·군·구 평의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원 장악과 더불어 훈센의 권위주의 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 훈센 총리와 인민당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NEC)와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 of Cambodia)의 결정을 통해 사실상 유일 야당 역할을 해오던 CLP의 선거 등록을 배제함(2023. 5)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2023. 7)을 통해 정권 비판자들의 선거 참여를 제한해 기존에 존재했던 경쟁요소마저 제거함.
  - 이번 총선에서 5석을 획득한 훈신펙당은 왕당파로, 사실상 여당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음.

■ 특히 훈센 총리와 인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추구해온 ‘일당 장기’ 지배체제를 사실상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민당은 2017년 11월 캄보디아 CNRP 해산을 통해 코뮌 평의회와 NEC를 장악했으며, 이는 연이은 총선(2018년과 2023년)과 코뮌 평의회 선거(2022년)에서 인민당이 뚜렷한 경쟁자 없이 압승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함.
  - 2017년 6월 코뮌 평의회 선거에서 인민당은 당초 득표율이 50.8%에 불과했으나 CNRP 해산에 따른 의석 재분배로 전체 의석의 95.5%(전체 1만 1,572석 중 1만 1,051석)를 획득했으며, NEC 역시 CNRP 소속 위원이 배제되고 인민당 위원이 추가됨에 따라 인민당이 장악하게 됨.<sup>15)</sup>
- 개정 선거법은 이번 총선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를 방해한 반정부 인사들의 2028년 8대 총선 참여도 제한함으로써 인민당이 차기 총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 줌.

## 2) 권력세습에 대한 정당성 확보

- 훈센 총리와 인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6대 총선보다 높은 투표율(84.6%)과 득표율(82.3%, 2023. 7. 24 기준)<sup>16)</sup>을 확보함에 따라 후계자로 지명된 장남 훈마넷(Hun Manet, 45)에 대한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실제 훈센 총리는 7월 26일 ‘3주 후의 총리직 사임과 장남에 대한 권력 이양계획’을 발표함.
- 훈마넷은 군총부사령관 겸 육군사령관과 인민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2월 훈센 총리와 당으로부터 훈센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으며, 2023년 1월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된 바 있음.

14) 山田裕史(2022), 「独裁強化と世襲に動くカンボジア政治—2022年コミュン評議会選挙がもつ意味」, p. 1.

15) 위의 자료, p. 3.

16) Kamnotra for the Record(www.kamnotra.io).

- 캄보디아 정부는 2022년 8월 헌법 개정을 통해 당초 국왕이 가지고 있던 총리와 내각 임명권을 형식적인 것으로 약화시키고, 의회 다수당이 임명 요청권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해 훈마넛으로의 권력 승계작업을 한층 수월하게 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총선에서의 압승이 사전에 예견되었고 총선 직후 바로 사임 및 이양 계획을 발표한 점을 통해 볼 때 이번 제7대 총선은 훈마넛에 대한 ‘신임투표’로서의 의미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인민당에는 높은 투표율 확보가 최대 관심사였음.
  - o 총선을 통해 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 더 나아가 전체 유권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 내부로부터의 혼란이나 이견을 차단했다는 의미도 있음.

■ 제7대 총선은 또한 훈센 정부와 인민당의 핵심 고위관료나 주요 정치 상인(Political Merchant)들이 자신들의 2세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의미도 있음.

- 이번 총선에는 훈센 총리의 장남뿐만 아니라 3남 훈마니(Hun Many), 부총리 겸 내무장관의 아들 사 소카(Sar Sokha), 상원의장의 아들 사이 삼알(Say Sam Al),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아들 테아 세이하(Tea Seiha) 등 인민당과 정부 각료의 많은 자녀와 친인척이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알려짐(표 2 참고).

표 2. 7대 총선에 출마한 인민당 및 정부 고위관료의 자녀들

이름	출생연도	부모 이름 및 직책 (또는 고급 간부와의 관계)	선거명부 순위
Hun Manet	1977	Hun Sen 총리	正1
Hun Many	1982	Hun Sen 총리	正2
Sar Sokha	1981	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장관	正2
Say Sam Al	1980	Say Chhum 상원의장	正1
Tea Seiha	1980	Tea Banh 부총리 겸 국방장관	正3
Nguon Socheat	1971	Nguon Nhel 전 국회 제1부위원장	正1
Ke Suon Sopheap	1983	Ke Kim Yan 부총리 겸 국가마약대책기구 총재	豫5
Dith Tina	1979	Dith Munty 최고재판소장관	正6
Ouk Panha	1984	Ouk Rabun 농촌개발장관	豫4
Cheam Chansophoan	1975	Cheam Yeap 국회 제1부위원장	正5
Yim Chhay Leat	1986	Yim Chhay Ly 부총리 겸 농촌개발평의회 의장	正4
Sok Sokan	1983	Sok An 전 부총리 겸 각료회의 관방장관	豫4
Cham Nimol	1980	Cham Prasidh 특임장관 겸 공업·과학기술·혁신장관	正5
Chhay Rithisen	1971	Chhay Than 기획부 장관	正8
Vong Soth	1957	(Heng Samrin 국회의장 사위)	正3

주: ‘정(正)’은 정후보, 예(豫)는 예비후보.

자료: 山田裕史, 新谷春乃(2023), 「安定的な世襲の実現に向けて—2023年カンボジア総選挙」, p. 10의 [표 1]과 Kamnotra for the Record(www.kamnotra.io)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총선 후 캄보디아 정치·경제 전망

### 가. 훈센 일가의 장기 독재체제 지속 및 태자당 중심의 권력 승계

- 훈센 총리와 인민당은 장기 독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권력세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장남 훈마넛에 대한 권력 이양을 8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BBC는 이번 총선이 선거보다는 ‘대관식(coronation)’에 가까웠고, 선거 승리로 ‘훈 왕조(the Dynasty of Hun Sen Family)’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보도함.<sup>17)</sup>
  - 특히 현역으로는 세계 최장수 총리인 훈센이 7월 26일 총리직 사임과 승계를 발표함에 따라 캄보디아에서는 총선 결과가 정식으로 발표되는 8월 이후부터 권력 이양 및 차기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훈센 총리는 총리직 사임 후에도 독재체제 관리와 권력 승계의 안정을 위해 상당 기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훈센은 CPP 총재직과 국왕 자문기구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2024년 초 실시되는 상원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상원의장을 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넘어 ‘섭정(攝政)’이나 ‘상왕(上王)’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것이란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제7대 총선이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에서 훈마넛의 총리직 승계와 함께 주요 지도층 자녀, 특히 캄보디아판 ‘태자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 승계작업도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훈센 총리의 오랜 통치 기간을 함께하며 권력의 증추에 장기간 머문 주요 지도부의 자녀들도 당 및 국가의 요직에 진출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특히 권력의 핵심인 인민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35명)의 자제들(32명)이 태자당을 구성하고 있음.
  - 캄보디아 ‘태자당’의 특징: ① 대부분 1970년대 이후 태어나 서방 국가 유학을 경험하며, 2010년대 이후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② 부모의 영향 아래 있는 부처나 국가기관 또는 선거구에 진출했으며 ③ 대부분 훈센의 3남 훈마니가 의장을 맡고 있는 캄보디아청년연맹연합(UYFC)의 간부로 활동 중임.<sup>18)</sup>
  - ‘태자당’의 핵심 그룹은 훈센 총리의 가족(훈마넛, 훈마니)과 친인척, 상원의장, 내무장관과 국방장관 등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짐(표 2 참고).
  - 권력 승계작업은 7대 총선에 의한 개원이 예정된 8월 말 전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개각 역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큼.

17) BBC(2023. 7. 24), “Cambodia election: ‘This was more of a coronation than an election.’”

18) 山田裕史(2021), 「人民党長期支配下で台頭するカンボジア版太子党」, pp. 4~5.

## 나. 주요 정치·경제 정책 방향과 경제회복

■ 훈마넛이 총리로 등극하는 8월 이후에도 캄보디아의 정치·경제와 사회정책은 당분간 아버지 훈센 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훈마넛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 뉴욕대 경제학 석사, 영국 브리스톨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비교적 합리적이고 친서방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센의 정권 장악력 지속과 캄보디아 정치·외교·사회의 특수성 등으로 당분간은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큼.
- 경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 최저개발국(LDC) 졸업이나 2030년까지의 중상위 소득국 진입을 위한 노력, 산업구조 다각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평화와 번영’은 훈센 총리가 오랫동안 내세운 장기집권 정당성의 핵심이자<sup>19)</sup> 이번 총선 압승의 한 배경이기도 함.

### 1) 주요 정치·경제 정책 방향

■ 훈센 정권은 국가 주요 목표인 ‘2030년 상위중소득국 진입’ 달성을 위해 최상위 국가개발전략인 ‘제4기 (2018~2023)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IV)’과 주요 경제 및 산업 육성전략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훈마넛 정부 역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 사각전략은 ①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 유지 ② 양질의 고용 창출 ③ 시장경제를 활용하여 빈곤율 10% 이하로 감축 ④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역량 강화를 4대 전략 목표로 설정함(그림 1 참고).<sup>20)</sup>
  - 목표 달성을 위한 4개 주요 전략부문으로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선정함.
  -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사각전략과 유사한 오각전략(Pentagon Strategy)을 ADB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핵심 분야는 녹색에너지, 농업·농촌 기술, 교육 등인 것으로 알려짐.<sup>21)</sup>
- 또한 사각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세부 전략인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을 5년 주기로 수립 및 이행하고 있음.
  - NSDP 2019~2023의 목표는 지배구조 개혁 가속화, 전략 이행을 위한 환경 구축,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 분야 육성 및 고용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임.<sup>22)</sup>
- 국가산업개발정책 2015~2025(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를 통해서도 캄보디아는 신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 금융산업 발전, 농촌개발 등에 대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임.<sup>23)</sup>

19) BBC(2023. 7. 24), “Cambodia election: ‘This was more of a coronation than an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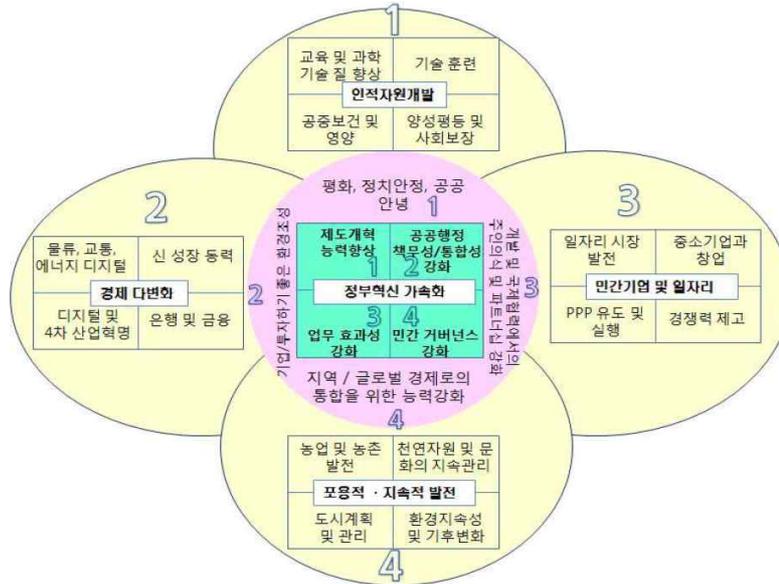
20) 외교부(2018),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사각전략) 2019-2023 발표」, p. 3, 재인용(검색일: 2023. 7. 27).

21) Cambodia Ministry of Information(2023. 6.19), “Cambodia To Adopt Pentagon Strategy For More Development”(검색일: 2023. 7. 30).

22)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9),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9~2023: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to Reach the Status of an Upper-Middle Income Country by 2030,” pp. 116-219.

23)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5),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검색일: 2023. 7. 27).

그림 1. 캄보디아 제4기 사각전략(RC) 도식화



자료: 외교부(2018),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사각전략) 2019-2023 발표」, p. 3, 재인용(검색일: 2023. 7. 27).

■ 인민당은 총선 전인 2023년 1월 캄보디아를 위한 '5대 기본 정책 2023~2028(Five Primary Strategic Goals 2023-2028)'을 통해 향후 5년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수립함.<sup>24)</sup>

- 인민당이 강조한 5대 정책은 △평화 및 독립성 유지 △선진화된 민주주의 다당 체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사회보장 시스템 수립 △2025년까지 지뢰 없는 국가 달성 △개방된 외교정책 유지 등임.
- 인민당은 선거 직후인 7월 25일 해당 정책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해 인민당과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2) 중기 경제 전망

■ 캄보디아는 2019년까지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다소 경제가 위축되었으나, 정부의 발 빠른 대처로 2021년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3 참고).

-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봉제업 생산 및 수출 증가 △건설 및 부동산 부문 호조 △관광업 활성화 등으로 연평균 7% 전후의 고성장세를 지속해옴.<sup>25)</sup>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FDI와 관광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22년부터는 국내외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입 증가 및 관광객 유입 증가로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임.
-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회복은 정부의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선제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로 인해 경제활동이 빠르게 재개되었기 때문임.<sup>26)</sup>

24) Phnom Penh Post(2023. 1. 29), "CPP sets out five primary strategic goals for 2023-28"(검색일: 2023. 7. 27).

25) 정재완, 김미림(2019),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검색일: 2023. 7. 27).

26) Phnom Penh Post(2023. 1. 12), "Cambodian economy grows by 5.1% in 2022: NBC"(검색일: 2023. 7. 31).

표 3. 캄보디아 거시경제지표 추이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	7.5	7.1	-3.1	3.0	5.2
GDP(명목)	십억 달러	24.5	27.0	25.8	26.9	29.9
1인당 GDP	달러	1,533.3	1,671.4	1,577.9	1,625.2	1,786.6
CPI 상승률(평균)	%	2.5	1.9	2.9	2.9	5.3
총수출	십억 달러	12.9	14.9	18.5	19.5	23.1
총수입	십억 달러	18.8	22.2	21	30.7	32
경상수지/GDP	%	-11.8	-10.8	-3.4	-40.4	-25.3
재정수지/GDP	%	0.7	2.3	-4.1	-6.4	-0.2
외환보유액	십억 달러	13.2	16.9	18.4	16.9	14.4
외채	십억 달러	7.0	7.6	8.8	9.5	10.0
총인구	만 명	1,603	1,621	1,640	1,659	1,677
시장환율(평균)	리엘/달러	4,051.2	4,061.1	4,092.8	4,098.7	4,102.0

자료: World Bank; CEIC 데이터(검색일: 2023. 7. 27)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023년부터는 국내외 수요의 본격 회복 및 관광업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캄보디아 경제는 당분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2023년 경제성장률을 6% 내외로 전망함.<sup>27)</sup>
-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수요 증가로 2023년과 2024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이 5.5%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sup>28)</sup>
- 세계은행은 관광부문이 회복됨과 동시에 신규 발효된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의 영향을 받아 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농산물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함.<sup>29)</sup>

### 3) 최저개발국(LDC) 졸업 전망

■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UN 개발정책위원회(CDP) 최저개발국 졸업 여건 심사에서 처음으로 3개 부문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짐.

- UN CDP는 3년에 한 번씩 최저개발국의 자립 가능한 발전 수치를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인간자산지수(HAI: Human Asset Index)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 Economi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로 구분해 이 중 2개 부문을 연속 2회 충족하면 졸업대상국으로 분류함.<sup>30)</sup>
- 2021년 실시된 심사에서 캄보디아는 GNI 1,377달러, HAI 74.3, EVI 30.6을 각각 달성해 3개 부문 기준치를 동시에 모두 충족하였음(표 4 참고).
  - 다만 캄보디아는 높은 중등교육 중퇴 비율, 낮은 전기 및 ICT 접근성, 자연재해 피해인구, 농림어업 비중, 농업 불안정성, 수출 불안정성 요소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적됨.<sup>31)</sup>

27) Phnom Penh Post(2023. 4. 18), "NBC's Chanto: Cambodia's growth will hit 6% in 2023"(검색일: 2023. 7. 27).

28) ADB(2023. 4. 4), "Cambodia's Economy to Accelerate on Tourism Recovery," Press release(검색일: 2023. 7. 31).

29) World Bank(2023. 5. 18), "Cambodia's Economy on Firm Path to Recovery, World Bank Report Says"(검색일: 2023. 7. 28).

30) United Nations(2021), "Handbook on the LDC Category," pp. 8-9.

31) 김소은 외(2023)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pp. 11~12(검색일: 2023. 7. 27).

표 4. 캄보디아 경제적·사회적 지수 달성 현황(2021년 검토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		인간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지수(EVI)	
국가명	달러	국가명	지수	국가명	지수
기준: 1,222달러 초과		기준: 66 이상		기준: 32 이하	
캄보디아	1,377	캄보디아	74.3	캄보디아	30.6

자료: 김소은 외(2023),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검색일: 2023. 7. 27).

- 훈센 정부는 2027년까지 최저개발국 졸업을 강조해왔고, 새롭게 수립되는 훈마넷 정부 또한 훈센 정권의 기초를 이어 최저개발국 졸업을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6월 훈센 총리는 2027년까지 캄보디아의 최저개발국 탈피를 강조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 진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sup>32)</sup>
  -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캄보디아-한국 자유무역협정, 캄보디아-중국 자유무역협정이 자국의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훈센 정권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훈마넷 또한 캄보디아 최저개발국 지위 탈피를 위한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

- 캄보디아 총선은 여러 차례 ‘민주주의 가치 훼손 및 인권 탄압’ 명목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다수의 서방 국가는 참관인 파견을 거부함으로써 선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함.
- 1993년 5월 UN 중재하에 내전을 종식하고 첫 캄보디아 총선을 실시한 이래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내 민주적 선거 과정 및 선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관인을 파견해옴.
- 그러나 제6대 총선 직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캄보디아 정권의 야당 및 언론 탄압에 반대해 참관인 파견을 거부한 바 있음.
- 특히 이번 제7대 총선 직전에도 미국과 EU는 동일한 명목하에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서방 국가의 결정은 캄보디아의 선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분석됨.
- 이와 함께 EU와 미국은 제6대 총선을 전후로 캄보디아에 경제제재를 시행해 총선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항의함.
- EU의 경우, 지난 제6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야당 및 언론 탄압을 이유로 2020년 8월 캄보디아산 수입품에 적용했던 최저개발국 무역특혜(EBA: Everything But Arms)를 부분 철회한 바 있음.<sup>33)</sup>
  - EU는 캄보디아에 적용된 면세특혜 부문 중 의류, 신발, 여행용 상품 부문 등에서 관세 철회를 언급함.

32) Xinhua(2023. 6. 5), “Cambodia to graduate from least developed country status by 2027: PM”(검색일: 2023. 7. 28).

33) EU(2020. 8. 12), “Cambodia loses duty-free access to the EU market over human rights concerns”; 김소은(2023), 「캄보디아 총선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비판과 향후 전망」, 제11회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발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7. 27).

- 미국의 경우, 상원이 2021년 캄보디아 제재를 위한 「캄보디아 민주화 법안(Cambodia Democracy and Human Rights Act of 2022)」을 제안하였고,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임.
  - o 본 법안은 캄보디아 민주주의를 훼손한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캄보디아 정치에 개입하는 외부 세력에 대한 실태 보고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sup>34)</sup>
- 이번 제7대 총선 전후로 미국과 EU는 총선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문을 발표하고 추가 경제제재를 언급하고 있어 향후 캄보디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EU는 2023년 3월 이란, 튀니지, 캄보디아의 인권 존중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특히 캄보디아 내 야당 정치인의 석방과 언론 자유화를 강력히 촉구함.<sup>35)</sup>
    - o 본 결의안에 따라 EU는 국제 인권 제재 차원에서 캄보디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 제재안을 채택함.
  - 한편 미국은 이번 제7대 총선 직후 서방 국가 중 가장 먼저 캄보디아 고위공무원 대상 비자 발급 중단과 무상원조 프로그램 잠정 중단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sup>36)</sup>

###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총선과 정권 이양(8월 예정)을 계기로 캄보디아의 정치 구조가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 총선 압승에 이어 훈센이 권력 이양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8월 이후 캄보디아의 정치 변화, 특히 권력구조 변화가 훈센 일가와 태자당을 중심으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캄보디아가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탄압 등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캄보디아에서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은 미얀마의 쿠데타, 태국의 총리 선출을 둘러싼 정쟁 격화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아세안의 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8월 이후 등장할 훈마넷 신정부의 경제와 외교 정책은 당분간 기존 정부의 기초를 계승하거나 더욱 발전시킬 전망이다. 경제상황 역시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 관광산업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넘어 LDC 조기 졸업, 경제 및 산업 다변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4) US Congress(2021), "All Information (Except Text) for S.3052 - Cambodia Democracy and Human Rights Act of 2022" (검색일: 2023. 7. 28).

35) EU Parliament(2023. 3. 16), "Human rights breaches in Iran, Tunisia and Cambodia"(검색일: 2023. 7. 28).

36) NIKKEI Asia(2023. 7.24), "U.S. says Cambodia vote 'neither free nor fair,' unveils sanctions"(검색일: 2023. 7. 27).

-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ADB와 공동으로 국가 최상위 개발전략인 사각전략을 대체할 ‘오각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한·캄 개발협력 전략을 다시 수립할 필요성도 있음.
  
- 다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되거나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의 캄보디아 제재 움직임, 특히 EU의 EBA 혜택 축소와 미국의 「캄보디아 민주화 법안」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KIEP